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NE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4



Catskill 名所 探訪

New York Thruway Exit 20에서 Catskill 계곡으로 접어들면 Washington Irving의 Catskill소재 단편소설 'Legend of Sleepy Hollow'와 "Rip Van Winkle"의 신화와 전설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1820년대 Catskill이 뉴욕의 휴양명소로 개발되면서 "뉴욕의 Alps"로 불리며 유럽의 로얄 패밀리와 상류층, 저명인사들의 사교장소가 됩니다. Catskill Mountain House, Hotel Kaaterskill, Laurel House 등 3개의 호텔이 성업하면서 예술, 문학, 음악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그 중심에 Kaaterskill 폭포의 웅장한 경관이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Kaaterskill 폭포는 절벽높이 260ft(80m)로, Niagara 폭포의 167ft(51m)보다 더높고,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Hudson강을 따라 Steamboat가 운행하였으며, 육로운송으로는 마차를 이용하여 Hotel까지 이동했었습니다. 1893년 Railway가 개통되어 산악열차로 Cog rail을 운행하며 번창하였으나, 1940년대 자동차와 도로건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1941년 산악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Catskill Mountain House 등 호텔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1963년에 폐쇄되면서 번성하던 캣스킬 휴양지는 역사

의 뒷안길로 접어들고 State Park에 병합되어 등산로의 일부구간으로 변경되었고 North Lake캠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Kaaterskill 폭포는 여전히 Catskill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유지하며, 주말에는 주차장이 꽉 차고, 폭포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폭포 하단으로 내려가는 탐방로가 계단식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오르내리는 관광객들로 붐비어 보행이 자유롭게 못한 고령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카터스킬 폭포 주변에는 철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철도부

[2페이지에서 계속]

6월 골프대회 안내

골든클럽회원 여러분

올해 3번째 골프대회를 NY의 Wallkill Golf Club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Wallkill은 코스가 잘 관리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홀마다 특색있게 배치 되어 있어서 회원들이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골프장이 뉴욕에서 다소 먼 관계로 15인승 밴 (골프채와 10명 탑승가능함)을 플러싱에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신청하실때 밴 동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6월 8일 (목)

시간: 오전 11시 Shotgun tee off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디너 및 시상식: 4시 Golf Club Lounge

골프장 주소: Wall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회비: \$120

등록: 김정필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3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안내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작은 더위를 지나 큰 더위로 향하는 7월 중순의 절기에, 새로 구성되는 44대 회장단의 인준과 신규 회장단의 인수 인계를 위한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동문 선후배를 반갑게 맞아 환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기 회장단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12시 정오 - 오후 3시

제 1부: 총회 - 43대 사업 및 회계보고,

44대 임원 인준 및 사업계획 보고

제 2부: 축하 음악회

제 3부: 기념촬영 및 식사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2117 Route 4E, Fort Lee, NJ 07024

참가비: 이사회비 \$200,

일반 회비: \$50, 동반인 또는 배우자 참가비: \$50

Check: Payable to SNUAANY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 to: SNUAANY, 53 Fraser Street,

Staten Island, NY 10314

회장: 금영천 718-791-4397

이사장: 성기로 917-751-4533

[1 페이지에서 계속]

설 부지를 따라 등산로가 구성되어 있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골든클럽 봄철 행사로 14인승 Van을 대절하여 Flushing을 출발해서, Fort Lee를 경유하며, 20명이 Kaaterskill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은 폭포 하단으로 내려가 그 웅장한 경관에 감탄했으며, 이후 1 마일 떨어진 North Lake 캠프장으로 이동하여 피크닉 테이블에 둘러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 점심과 커피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Catskill Mountain House 유적지로 올라가 Hudson River Valley 너머로 펼쳐지는 지평선을 감상하면서 Catskill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가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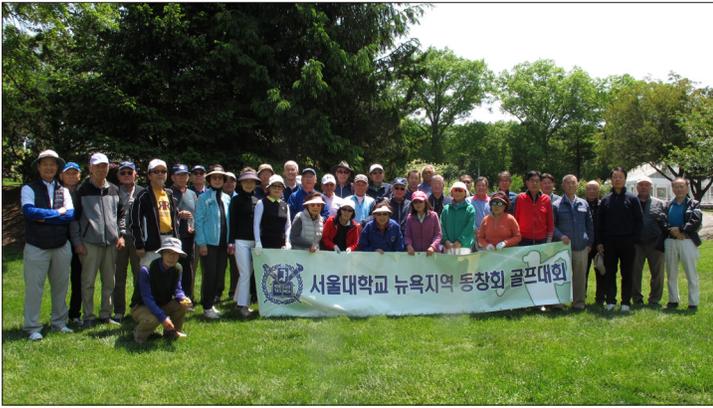
(뉴욕) 박희병/박정은 배상규/박정원 성기로 박상원/Taeko
(뉴저지) 김정필/강혜미 김익성/전순환 오용호 우규환/우영순
임도혁/송진희 최병우 홍종만/홍예경, 김문수



'태권도 대부' 이준구 추모 5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이준구 회원의 형님이신 '태권도 대부' 이준구 대사범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했습니다. 5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이준구 대사범 5주기 추모회'와 함께 '준리 기념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태권도의 세계적 발전은 이준구라는 영웅이 개척한 자산"이라고 추모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워싱턴에 첫 태권도 도장을 연 뒤 세계화에 힘을 쏟은 이 사범은, 스포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금세기 최고의 무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월 18일 Split Rock에서 열린 SNU 장학기금 골프대회



홍종만 회장의 폭포 방문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



장학기금 골프대회에 11명이 참석하여 단과대 우승을 한 약대동문



Kaaterskill Falls을 방문하고 도시락으로 맛있게 점심식사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며 쉬고 있는 여성 회원들



폭포앞에서 박정원 배상규 성기로 회원



허유선 회원의 장남, 조셉페도의 첫아들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젊은 허회원이 벌써 할머니가 되어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네요



폭포 방문 후에 허드슨 강이 내려 보이는 언덕에서

4월 Sunset Valley Golf 대회 보고



날짜: 2023년 4월 20일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NJ

참가인원: 32명

강에드 계동휘 광선섭 금영천 김문언 김익성 김정필 김치갑
민준기 박기환 박상원 박현미 배상규 성기로 손경택 안용희
여주영 오순문 오용호 윤선구 윤현남 이영범 이용대 임도혁
전순환 조달훈 조승자 천병수 최병우 한태진 홍예경 홍종만

성적 및 시상

입상	이름	Gross	Net	Over
1등	이용대	21	21	0
2등	조승자	20	19	1
2등	김치갑	18	17	1
3등	김익성	23	22	1
3등	홍종만	32	31	1
3등	한태진	28	26	2
근접 3	성기로			
근접 6	조승자			
근접 11	이용대			
근접 14	오용호			

경비 결산

수입			\$3,760.00
	참가비	\$3,760.00	
지출			\$4,077.63
	Green Fee	\$2,815.20	
	Dinner	\$625.43	
	김밥	\$277.00	
	상금	\$360.00	
결산			-\$317.63

5월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날짜: 2023년 5월 18일

장소: Split Rock Golf Course, NY

참가인원: 41명

강에드 광선섭 권정덕 김문경 김문언 김우영 박상원 박희병
배상규 손갑수 손경택 유규환 윤선구 이승우 이용대 임도혁
계동휘 금영천 김동건 김두현 김병순 김정필 김창수 김ALEX
손진태 오순문 오용호 유호근 이대영 장정수 조달훈 홍종만
고운숙 김옥진 김종원 변창하 여주영 조승자 최복자 홍선경
홍예경

성적 및 시상

입상	이름	Gross	Callaway Net
Champion	김문경	88	71
1등	박희병	85	72
2등	손경택	85	72
2등	유호근	91	72
3등	조승자	96	72
3등	권정덕	97	73
3등	김정필	89	73
근접 3	유규환		
근접 6	김옥진		
근접 12	홍종만		
근접 16	홍예경		
장타	손갑수		
단과대	약대		

경비 결산

수입			\$4,920.00
	참가비	\$4,920.00	
지출			\$5,385.00
	Green Fee /Dinner	\$4,305.00	
	점심/간식	\$260.00	
	상금	\$620.00	
	Tip	\$200.00	
결산			-\$465.00

장학기금 모금 금액: \$9,815.00

모금 참가자 명단:

광선섭, 권정덕, 금영천, 김문경, 김종원, 성기로, 송학린, 송해순, 신
응남, 오용호, 윤선구, 이진구, 임도혁, 정해민, 조달훈, 홍종만, 간호
대(회장 김정희), 약대(회장 김문경).

커피왕국, 카페천국 대한민국

■ 손대홍 (미대79)

저는 벌써 서울에 온 지 7주가 지나며 머지않아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미국에서 살아야 인생이 조금 더 길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생활은 미국에서의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 중 하나는 바로 커피 문화입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한국의 커피 소비와 시장규모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결론만 말하면 한국인은 일년에 367잔의 커피를 마신다 합니다. 각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의 통계가 있는데 프랑스가 551잔, 한국 367잔, 미국 327잔, 일본 280잔, 중국 9잔으로 전 세계 평균 161잔에 비해 한국인은 두배 이상을 마시며 세계 2위의 커피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2020년 자료라서 한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고려하면 지금은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입니다. 또 2020년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가 43억 달러였는데 이는 미국의 261억 달러, 중국 51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였는데 인구를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소비 규모입니다. 특히 2023년의 시장규모는 66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하니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예전과는 달리 커피믹스가 아닌 카페 커피에 대한 선호가 무척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집이나 사무실에서 커피메이커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전문점인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는 커피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캡슐 커피머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조차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의 카페는 언제나 만원이고 스타벅스는 어디를 가나 공부하는 학생부터 회사원, 친구끼리 수다 떠는 주부들까지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당 카페 숫자가 한국은 1,384개, 일본 529개, 영국 386 개, 미국 185개, 중국 71개로 한국의 커피 전문점 수는 압도적입니다. 2021년 국제청 의 통계자료를 보니 커피전문점은 8만3363개로 2017년 4만4035개에 비해 4년 만에 거의 2배로 성장했으며 커피 전문점 종사자 수는 2019년 통계로 약 23만 명, 매출액은 1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미팅을 하러 가면 대부분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가 놓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 몇 잔을 take-out해서 갖고 갑니다. 만남의 약속은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지며 식사를 먼저 하는 경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집니다. 회사원들은 점심식사 후 함께 몰려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take-out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걸어가며 마십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서초동에 '고종의 아침'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상호의 연유를 물어보니 조선 마지막 임금 고종이 커피 애호가였다 합니다. 슬픈 역사이지만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으로 피해 있던 고종은 통역가였던 독일인 손탁 여사를 통해 커피를 처음 접하고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후 손탁은 정동에 고종



이 하사한 대지에 손탁 호텔을 세워 커피를 팔았으며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덕수궁 정관현에서 커피를 즐겼다 하는데, 1884년 궁중어의 알렌이 남긴 기록에는 고종이 아관파천 전부터 커피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다방이라는 공간이 오랜 시간 커피의 소비 장소였고 미군부대를 통하여 시중에 공급되던 인스턴트 커피는 1976년 동서식품의 커피믹스 개발로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두커피는 1979년 동송동에 문을 연 '난다랑'이 시조라고 하는데 동송동에 살았던 저는 대학 1학년년부터 꽤나 자주 이용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99년 한국 커피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 생겼는데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연 것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현재 매출 2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인의 커피 사랑 그리고 한국 커피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진출 24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면 일하는 사무실 반경 300피트 내에는 10여개의 카페가 있으며 600피트 내에는 20여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카페 천국입니다. 그리고 카페마다 다른 방식으로 roasting을 하고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다 보니 맛도 다양하고 카페의 분위기도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커피 한잔을 추출하는데 정성도 대단하고 맛도 무척이나 뛰어나합니다.

사실 작년에 카페인을 끊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3달간 커피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름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데 서울에 출장와서는 참새가 방아간을 그냥 지나지 못한다고 카페 앞으로 지나며 코끝을 스치는 커피 roasting 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커피를 입에 대기 시작해서 cinnamon이 건강에 좋다는 자기합리화로 Cappuccino를 즐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의 커피 맛집에서 마시는 맛 좋은 커피는 예전에 로마나 파리에서 즐겼던 커피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맛에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커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카페에서 커피 roasting이 많은 규제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어 바로 roasting한 커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서울 그리고 지방의 유명 카페에서 갓 볶은 커피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왕국, 카페천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Quo Vadis, chatGPT?

■ 윤현남 (공대64)

Introduction

내가 chat-GPT(이하 cGPT)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말 한국의 trendy한 친구가 Open AI라는 회사가 막 출시한 cGPT를 사용해 쓴 성탄축하 메시지였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글 치고는 꽤 잘 썼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제 반 년 밖에 안 되었는데 온 세상이 cGPT 로 시끄러워졌다. 내 아낙은 93세이신 친구 어머니를 칭송하는 시를 만들지 않나, 대학생들은 모두 표절인지 아닌지 모호한 report를 만든다는 기우도 나돌고, Amazon 에는 cGPT 가 저술한 책이 이미 100권이 넘는다 하고, 지난 달 Turkey 선거에서는 fake 선거광고들이 대량으로 출현했고, 급기야 미국 상원의 AI Hearing에서 어느 상원의원은 누가 cGPT를 사용해 만든 본인 목소리가 들 어간 가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눈치 보느라 AI 제품을 출시 않고 기다리던 대기업들도 물꼬를 열어 Microsoft는 Bing에 cGPT 기능을 첨가했고, Google은 Chrome Bard를, Meta도 자신의 generative AI(GAI)를 부착했고, Apple은 금주부터 i-Phone에 cGPT service 그리고 Amazon은 Alexa에 GAI 기능을 시작한다. 누가 AI의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의 전쟁이 제대로 시작된 모양이다. 덕분에 일반 소비자들은 큰 부담없이 G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AI 시대가 시작된 것 같다. 앞으로 AI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내 의견을 간단히 적어본다.

What is chatGPT?

단순히 설명하면 chat-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에 관해 지속적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적절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computer program이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바탕은 2017년 Google이 개발한 transformer 알고리즘이다. cGPT는 이를 수천억 개에 달하는 문장을 미리 학습(pre-trained)시켜 (소위 large language model)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 사용시에는 주제를 입력하고 문장을 생성(generate)하기 시작할 때에 주제 다음에 올 단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학습한 문장들을 참조하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첨가하고 이 방법을 반복하여 적절한 문장들을 만들어 나간다. (Stephen Wolfram, What is ChatGPT doing ..., 2023) Chat-GPT는 소위 Generative AI (생성 인공 지능)의 일환인데 다른 AI program은 pre-training 단계에 image 또는 art work들을 훈련시켜 그림을 만드는 AI 또는 음악과 악보를 가지고 훈련시켜 작곡하는 AI들도 개발되고 있다.(Wikipedia, ChatGPT)

What can we do with Generative AI?

AI에의 기대와 희망은 무한하지만 cGPT 및 다른 현 GAI제품의 수준은 아직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풀지 못한 근본적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는 사람의 supervision 없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cGPT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글(e-mail, 축하 글 등)들을 쉽게 작성한다. 그러나 cGPT 글의 정확도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생일축하 글 같은 경우에는 cGPT 글은 진정성, 공감성이 미약 (남들이 이미 써 놓은 글 중에서 확률을 적용해 표절?) 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작문뿐만 아니라 cGPT는 다른 (Expedia, Open Table, Shopify, Mathematica, Zapier 등) app 들과 연결이 되어있어 여행준비, 식당예약, 쇼핑, 수학문제 풀기, 메시지 보내기 등을 audio로 다 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cGPT에 대해서 현재는 부정적이다.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는 cGPT가 글 쓰는데 필요한 자료 준비, 작문하는 실력을 키우는 훈련 즉 '고교 영어'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고 다른 교사는 cGPT를 사용하여 글을 outsourcing하는 학생들이 걱정되지만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또는 추론을 향상시키는 데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많은 교육자들은 AI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표절하는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AI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많지만 의료의 경우 환자에 대한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감독 없이 AI 도구가 독립적 진단이나 치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AI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수 년 사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의사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Radiology 연구지의 보고에 의하면 AI가 유방암 검진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약 88% 적절하게 답했다 한다. 환자들이 맘놓고 의사를 믿을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통상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약 80%) 있지만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대한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간에 AI doctor가 출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가지 재미있는 data로 cGPT가 미국 의사 자격시험 중 3 test를 보았는데 42% (합격미달)을 받았다 한다. 법조계에서의 반응도 의료계와 거의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기업계에서의 AI(cGPT 포함)에 대한 열성은 활발하다.

cGPT를 사용해 제품, 기업 심지어는 정치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회사들이 부지기수로 창업하고 있다. 특히 정치 광고 탓으로 fake 광고들이 만연하여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commerce가 세계 전체에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 고객, 제품의 data역시 폭발적으로 쌓이면서 기업마다 data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기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cGPT가 중요한 도구로 채택되고 있다. 현대 기업은 많은 직원 (익숙한 이름의 회사들은 수십만명은 보통이고 아마존은 무려 2백만명 가깝다), 설비, 조직 등에서 매일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결정과 activity가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network로 효과적인 내부 소통이 없으면 곧 control을 잃게 된다.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소통 전문 AI 도구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미흡하더라도 cGPT라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cGPT/GAI의 문제점

cGPT는 현재 생성한 문장에 명백한 error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수정하는 능력이 없다. 심지어는 input 에 오류가 있어도 맞는 input 으로 처리하여 글을 작성한다. 적절한 단어를 통계적으로 선정하는 GPT의 기본 구조와 연결된 약점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cGPT의 글들은 내용이 구체적(specific)이지 못하고 오히려 피상적(geral)이다. 얘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나열해 놓은 것 같지 글의 맛 또는 멋이 없다. 글 쓰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글을 써도 두 번 정도는 수정을 해야만 좋은 글이 되는데 cGPT는 스스로 문장의 질을 키우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사람이 cGPT가 생성한 글을 수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하려고 새 문구 또는 data를 첨가하면 때로는 소위 hallucination 상태로 들어가 버리기도 한다. 이 현상도 GPT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cGPT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을 하는 경우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인 norm 또는 적절한 규제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tool들도 AI기술과 병행해서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

Quo Vadis, AI?

cGPT의 시효를 빌미로 미국 최고, 최대의 기업들이 모두 AI 경쟁에 뛰어들었으니 위의 문제들은 곧 해결되고 advanced generative AI의 시대가 멀지 않아 확립될 것이다. 하지만 AI 연구자들의 꿈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라 불리는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이다. AGI가 가능한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AI에서의 지능은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1차원적 지능이라면 사람의 지능은 다차원적 지능(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Howard Gardner 2011)으로 어떤 지능들은 논리적 분석이 가능하지도 않다. 거기에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은 지금의 machine learning에 비해 월등하게 다양해서 AGI가 가능하더라도 어떤 path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아마도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은 지금의 Generative AI에서 Creative AI가 가능한가 일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AI의 시대에서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같다.

"여보시게/보시게"

- 세상사 / 인간사

■ 이 흥빈(의대57)

여보게
보시게
여보시게

...

세상사 사무
바탕
굳이 웃기로

인간사 무릎
포복
새록 웃기로

(가는 이
잡지 마시게
인연이 아닌가 보이
오늘 이
반색하시게
행여 뒷길 동행이 될까보이)

세상사 굳이
인간사 까집거
사무 웃기로

진닥에 무릎
우리 그리
아름다운 인연 살았기로

이래/여길 고난
저래/거길 희열
세상사 인간사 피식 웃기로

...

여보게 보시게
늘 우리 맘 열여 마냥
인연을 웃기로 행복하기로.

회원 명단 (114명 / 2023-5-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임도혁	최철용 최학주 추재욱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유선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임창우	
강영선	김승호	손기호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익성	손옥화	이상무	정해민	
곽승용	김인형	송근숙	이준	정해민	
구달희	김정필	송현자	이대연	조상선	
권문웅	김종울	송현자	이영범	주재양	
권정덕/ 홍선경	김창수	송학린	이용대	진병일	
권영대	김치갑	송혜순	이전구	천병수/ 천종화	
권태전	김태일	신진식	이종대	최구진	
김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종석	최병우	
김광현	노용면	오윤호	이준희	최수용	
김동건	민준기	오유섭	이태호	최순채	
김문경	박기환	오인석	이행순	최준희	
김문언	박상원	우규환	이홍빈	최진영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5-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8월	10일(목)	Golf Outing
	17일(토)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2일(목)	Golf Outing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3일(토)	신년교례회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71명 / \$7100 /2023-5-25)

강에드	김창수	손갑수	이대연	조달훈	홍예경
강영선	김치갑	손대홍	이상무	조승자	
곽선섭	홍선경	남종현	이영범	천병수	
곽승용	권문웅	손옥화	이용대	천종화	
권영대	김영천	송용길	이전구	최병우	
권정덕	김상만	송현자	이종대	최수용	
권태전	김종울	송근숙	이종석	최준희	
계동휘	민준기	송혜순	이행순	최철용	
김광현	박기환	신두식	이홍빈	한영수	
김동건	박상원	신진식	임도혁	한용오	
김문경	박희병	오순문	임호순	한태진	
김병순	배상규	오용호	정수일	한용희	
김익성	성기호	우규환	정해민	홍정표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주상선	홍종만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4명 / \$10,480/2023-5-25)

강에드 200	성기호 500	윤선구 200	최철용 200
권정덕 300	손경택 1500	이전구 1000	한태진 500
김영천 300	신두식 2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김광현 200	신진식 300	임호순 300	
김문경 200	오순문 200	정해민 1000	
김종울 200	오용호 300	최수용 1000	
김치갑 80	우규환 200	최준희 4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5-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경 (약대61)
- 김우영 (상대60)
- 손갑수 (약대59)
- 신응남 (농대70)
- 이민제 (공대70)
- 최병우 (공대67)